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오늘도 군민 곁으로

가전수리·방충망 교체 등 30개 분야 맞춤형 서비스로 삶의 질 높여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이 주민들에게 소화기를 배부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일 동일면 백양리 동포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282회 어깨동무봉사단' 현장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동포·사동·양화·신초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일상 속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기관과 봉사단체, 각 분야 자영업자를 하는 봉사자 등 70여 명이 동참해 총 30개 분야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펼쳤다.

농기계 및 가전수리, 칼갈이, 방충망 수리를 비롯해 양한방 물리치료, 이동 빨래방, 청력검사 등이 진행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가스 타이머 설치,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배부, 수도꼭지 수리, LED등 교체 등 주거 안전을 높이는 실속 있는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봉사는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전국 청년 97명과 '보성 청년 3보 챌린지' 개최

보성군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간 제암산자연휴양림과 보성을 일원에서 '보성 청년 3보 챌린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청년과 보성 청년들이 함께 보성의 3경과 3보향을 새로운 시선으로 발견하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97명의 청년이 참여해 14개 팀으로 나뉘어 지역 탐방과 협력 과제를 수행했다.

참가자들은 보성녹차공향도시장과 열선루, 대한다원, 율포솔밭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체험했다.

또한 현장에서 느낀 보성의 매력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며 청년의 시각에서 지역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저녁에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팀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청년 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역 연계 아이디어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성에서 청년들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논의했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립도서관, 박상미 교수 초청 북콘서트

바쁜 일상에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치유와 공감의 강연이 해남에서 열린다.

해남군립도서관은 오는 15일 오후 7시, 해남문화예술회관 1층 다목적실에서 문화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가인 박상미 교수를 초청해 '도서관 북콘서트'를 연다.

박상미 교수는 저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통해 우울과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인생에는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진심어린 공감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번 강연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읽는 유쾌한 공감법을 나누는 한편 일상 속 작은 행복 속에서 내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를 들려줄 예정이다.

강연에 앞서 감성적인 선율을 선사하는 3인조 음악 그룹 '양상'을 돌체'의 공연이 더해져, 가을밤의 감성을 더욱 깊이 전한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민선9기 100일 '진도 대전환'

진도군이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100일의 변화, 군민과 함께 그리는 진도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간담회(타운홀미팅)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가 출범한 이후 100일 동안의 변화와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과 공유하고, 군민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 간담회(타운홀미팅)는 취임 100일의 의미를 담아 100분간 진행된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민선 9기 100일간의 변화와 진도 대전환'을 주제로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군정 방향을 설명한 뒤, 군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AI 질문으로 살펴보는 진도의 미래'를 통해 지역경제와 군민소득, 진도의 경쟁력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청태전' 알리기 나서

장흥군은 지난 9월 30일 탐진강변에서 청태전의 전통을 보존하고 차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농업유산 청태전 찾자리' 행사를 개최했다.

청태전보존연구회(회장 이영민)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관내·외 차인과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탐진강변에서 청태전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일대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전통 차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태전보존연구회원들은 선비차 다례 시연을 직접 선보였다. 6대 다류 시연과 함께 차를 내는 과정과 예법을 살펴보고, 차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며 전통차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노력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청태전의 전통과 가치를 알리고 차문화 계승에 힘썼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10월 9일 가을 해변 독서 문화 축제 열린다!

2천여 권 책 배치, 책과 문화·예술 즐기는 프로그램 마련



가을 해변 독서 문화 축제 개최 안내 포스터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과 함께 '제3회 가을 해변 독서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가을 해변 독서 문화 축제는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책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야외 도서관을 비롯해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공연, 전시, 독서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야외 도서관은 행사장의 인조 잔디 위에 도서 2,000여 권과 인디언 텐트, 파라솔, 빈백 등을 배치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작가와 함께 '나만의 바다 그리기'와 '책갈피 만들기'를 하고 원목 키템, 독서 무드 등 공예, 인공지능(AI) 동화책 만들기, 완도 굿즈 만들기, 완

도의 랜드마크 스케치 등도 체험할 수 있다. 10월 9일에는 요들송·스위스 악기 연주, 10일에는 어린이 인형극 '책이 꼬지락꼬지락', 11일에는 매직 쇼와 풍선 아트, 로봇 인형이 함께하는 스페셜 키즈 매직쇼 등을 선보인다. 청해 문학상 수상작과 완도를 소재로 한 도서, 전남 올해의 책, 독서 동아리 추천 도서,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등 책과 작품 전시도 한다.

이외에도 부스를 체험하고 완도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퀴즈, 그림책 읽기와 책 놀이 등 참여형 이벤트도 준비했다. 군 관계자는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과 함께 책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특별한 추억 쌓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